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2701 호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국어 · 수학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여려웠다

이준식 교수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핵심 · 기본적 내용 중심 출제”

23일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1교시 국어와 2교시 수학 영역 모두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1교시 국어영역은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고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영역은 지난해 수능에서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일부 문제 유형이 바뀌어 비교적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올해 치러진 두 차례 모의평가에서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난도가 엇갈렸다. 6월 모평 때는 지난해 수능보다 약간 더 어렵고 9월에는 다소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2교시 수학영역은 이과계열 수

험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가형'은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고 작년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다고 평가됐다. 문과계열 수험생들이 보는 '나형'은 9월 모평이나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수능 출제위원장을 맡은 이준식 성균관대 교수는 전반적인 출제경향에 관해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기본 개념 이해와 적용 능력, 주어진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추리·분석·탐구하는 사고 능력을 측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능 출제 문항과 EBS 교재 연계율은 문항수를 기준으로 국어는 71.1%였으며, 수학 가형과 나형 70.0%, 영어 71.1%, 한국사와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

외국어 · 한문 모두 70.0%였다.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오전 8시40분부터 시행된 이번 수능에는 59만3천527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재학생은 44만4천873명, 졸업생 등은 14만8천654명이다.

평가원은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12월 4일 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수능 성적은 12월 12일 수험생에게 통보되며, 영역 ·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한국사와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된다.

필수인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김정환기자

문체부 ‘나침반’ 고장 났나

23개 법정계획 중 13개 제 때 안 나와 방향타 기능 미흡

문화체육관광 각 분야 업무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23가지 법정 중장기계획 중 상당수가 제 때 나오지 않거나 시행연도가 시작되는 해에 발표돼 나침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문체부 법정계획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소관 63개 법률 중 23개 법률에서 3년 또는 5년을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정계획은 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수립 발표해야 할 뿐 아니라 각 영역의 업무를 계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상당수가 이전 계획에 시행기간이 지났음에도 다음 계획이 발표되지 않거나, 이미 시행 시기가 시작된 뒤 발표되어 길잡이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김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13개 법정계획이 제 때 세워

지지 않거나 시기가 지나 발표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6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제2차 계획 이후 다음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기본법 제4조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발표해야 하지만 2014년 제2차 계획 발표 이후 감감 무소식이다.

문체부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곧 발표할 예정’이라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 올해 5월이었고 이미 지난해 초에는 발표됐어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의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이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는 셈이다.

김병욱 의원은 “23개 법정계획 중 절반이 넘는 13개가 뒷북치듯 수립되어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의 나침반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적어도 새로운 사업계획을 잡기 1년 전에는 중장기 계획이 공표되도록 타임스케줄을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복기자

문체부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제4차 계획의 대상 시기가 시작된지 9개월이 지난 뒷북이었다. 관련 첫 해 예산 배정도 이미 1년 전에 확정된 뒤였다.

현재의 법정계획 대상 시기가 올해로 끝나는 생활체육진흥계획 등 3가지도 아직 다음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 문체부에 따르면 생활체육진흥계획은 이달부터 2달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은 올해 말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종합계획은 내년 5월 발표 계획이다. 그런데 해당 업무의 201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은 벌써 확정되어 국회 심의만 남겨두고 있어 이미 시기를 놓치기는 마찬가지이다.

김병욱 의원은 “23개 법정계획 중 절반이 넘는 13개가 뒷북치듯 수립되어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의 나침반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적어도 새로운 사업계획을 잡기 1년 전에는 중장기 계획이 공표되도록 타임스케줄을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호기자

어린이재활병원 건립방안

대전시 시민대토론회 개최

대전광역시는 23일 오전 10시 시청 세미나실(3층)에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19대 대선공약 및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선정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논의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훈 대전시 의회 의장과 국회 이상민 의원 등 정치계 인사와 황경아 장애인단체 종연합회장, 박태규 지체장애인협회장 등 장애인단체장, 장애인복지 시설장, 시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원 대전대학교 교수와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 이병권 건양대학교 교수, 권순오 대전시 교육청 장학관, 이선옥 대전장애인부모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시민의 질의 답변을 통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대전세종연구원 장정수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어린이재활병원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 규모는 100병상, 공공성 확보와 지방 재정의 한계점을 고려해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모델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국립이 어려울 경우 건립비와 운영비는 최소한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원되어야만 지속 가능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또, 패널로 참여한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은 “성인의 37배에 달하는 장애아동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최초 건립하는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은 제대로 된 병원을 건립하고 집중치료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김택수 정무부시장은 “대전 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어린이 재활병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수험생들 피아팅!!”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23일 수능 당일 아침, 시험장인 대전둔원고, 대전만년고 등 2개교를 방문해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수험생 시험감독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시험감독관 등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했다.

현대제철 산업용 보일러관 세계 일류상품 선정

총 7개 세계 일류상품 보유… 철강업계 최다 영예

현대제철이 세계 일류상품 철강업계 최다 보유의 영예를 이어가게 됐다.

현대제철은 2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크나스 호텔에서 열린 산업부주관 2017년 세계 일류상품 선정 기업 인증서 수여식에서 ERW 산업용 보일러관이 세계 일류상품으로 새롭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총 7개의 세계 일류상품을 보유하게 돼 13년 연속 철강업계 최다 보유의 영예를 이어가게 됐다. ERW 산업용 보일러관은 고주파 용접강판 표면에 핀(Fin) 가공을 한 제품으로

류상품의 반열에 올린 이래 2005년 무한궤도, 부동변 부동 후生气, 강널말뚝, 선미 주강품 등 4개 제품을 추가하면서 6개의 일류상품을 보유해왔다. 2015년 선미 주강품이 제외됐지만 유정용 강관이 새롭게 일류상품으로 선정되면서 지난해까지 6개의 일류상품을 유지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올해 ERW 산업용 보일러관이 신규 선정돼 총 7개 제품을 세계 일류상품에 올림으로써 현대제철의 기술력과 품질을 다시 한번 알리게 됐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 품질을 높이고 고객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기자

기상청, 12월~내년 2월 기상전망 발표

기상청이 3개월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기온의 경우, 12월에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1월과 2월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다. 월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월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다.

1월은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

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다. 월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월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다.

2월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다. 월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월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다.

1월은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

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다. 월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월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이영호 기자

Mission for Human

현대마린의 면속기 기술은
인간을 위해 혁신합니다



자동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송기 역시 그 목표를 위해 혁신해야 합니다.

현대마린의 반송기인 편속기인 편 속도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자동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트로피컬의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자동차 운전자는 찾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마린에게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HYUNDAI
POWERTECH

야권 대표 인물 '유승민26% > 홍준표18% > 안철수15%'

국민의당 싱크탱크 국민정책연구원, 여론조사결과

국민의당 싱크탱크 국민정책연구원(원장 박재우)은 18~19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 '현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안 대표, 홍 대표, 유대표와 김무성·한국당 의원 4명을 두고 현재 야권을 대표할 인물이 누구인지를 물은 결과 유승민 대표가 26.2%로 가장 높았고 홍준표 대표가 18.2%로 뒤를 이었다. 안철수 대표는 14.5%를 기록했고 김무성 의원은 3.8%였다. 기

타가 5.8%였으며 모름/무응답이 31.5%였다.

연령별로 유승민 대표는 19~20대(27.9%), 30대(30.6%), 40대(33.2%) 등에서 1위를 기록했고 60대 이상(19.8%)에서도 높았다. 홍준표 대표는 20대(20.7%)와 50대(21.1%), 60대 이상(20.2%)에서 20%대를 기록했고 안철수 대표는 50대(18.0%)와 60대 이상(17.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지목됐다.

지역별로도 유승민 대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한 모든 지역에서 현재 야권을 대표할 인물로 꼽혔다. 서울/유승민 30.0% 대 홍준표 19.9% 대 안철수 14.1%, 인천/경기/유 28.2% 대 홍 16.4% 대 안 12.9%, 광주/전라유 24.5% 대 홍 10.5% 대 안

21.0%, 대구/경북 26.3% 대 25.1% 대 11.0%, PK 20.2% 대 21.9% 대 13.1%, 강원/제주 19.8% 대 17.5% 대 19.7%였다.

정당지지층별로 보면 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4.0%)과 비례정당 지지층(46.6%), 정의당 지지층(33.9%)에서 1위를 기록했고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60.2%)에서 압도적이었고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지지층(50.3%)에서 높게 나왔다.

비례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할 경우 통합정당을 지지한다는 흐름을 보면 '유승민 32.0% 대 안철수 26.2% 대 홍준표 15.6%'였다.

참고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9.0%, 자유한국당 11.8%, 국민의당 5.5%, 비례정당

6.3%, 정의당 5.4%로 조사됐고 통합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은 47.5%로 기존정당 지지도 대비 15%p 하락했고 한국당 지지율은 11.7%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국민·비례통합정당의 지지율은 19.2%로 급등하면서 2위 정당으로 올라섰고 정의당은 4.2%로 기존정당지지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19일 전국 성인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87%) 유선전화면접(13%)를 병행해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p이며 응답률은 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정복기자



대전시의회 김경훈 의장, 수능 시험장 찾아 수험생 격려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은 23일 오전 6시께 대전광역시교육청 제27지구 제1시험장인 둔원고를 찾아 수험생들을 격려하며 긴장을 풀고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했다. 한편, 김경훈 의장은 수험생들에게 '짧은 3년, 길게는 12년이라는 멀고도 긴 세월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다'며 '날씨는 춥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시험 잘 보길 기원한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세종 상생협력 증진 위한 토론회

두 도시 간 상생협력 방안 모색하는 담론의 장 마련

대전세종연구원(원장 박재우)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공동 주최로 11월 27일(월)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실(5층)에서 대전·세종 상생협력을 위한 발전방향을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과 세종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역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두

도시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담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주제발표로 최길수 대전세종연구원 상생협력실장이 "대전·세종의 상생협력을 위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이어서 강영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대전·세종 상생협력 전략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정환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지역위원회, 박범계 위원장 특강

"촛불 강연회 적폐청산 왜 필요한가"란 주제로 실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지역위원회(위원장 송수호)가 22일 저녁 7시 문화동 가로교연합봉사회관에서 "촛불 강연회 적폐청산 왜

필요한가"란 주제로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 특강을 실시했다.

송수호 중구위원회는 인사말을 통해 "적폐청산은 미래에 대한 메

세지"라며 강연회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해 옳은 길을 가자", "당원 모두 힘을 합쳐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적폐청산 왜 필요한가'란 주제로 강의를 한 박범계 위원장은 "원칙을 지키면 대기를 받고, 원칙을 어기면 대가를 치른다"는 간결한 문장이 적폐청산"이라며 "과거의 폐단을 제대로 시정해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는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현재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안과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당원들의 응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정복기자

천안시 두정역 북부개찰구 설치, 철도시설공단 이사회 통과

박완주 의원 "지역주민과 더불어 환영, 신속한 사업진행에 최선 다할 것"

천안시 두정역 북부개찰구 설치사업이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회를 통과해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두정역 북부개찰구 설치사업이 오늘 오후 철도시설공단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10년째 지역의 현안이었던 사업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천안시를 통과하는 여섯 개 역 중 하나인 두정역은 이용객 급증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곳이다. 두정역 북부면은 아파트 5,300세대, 다가구주택 4,000세대, 그리고 산업단지 산재 등 높은 이용객 수요로 혼잡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단국대, 백석대, 상명대 등 두정역 인근 6개 대학에 통학하는 학생들의 등하고 셔틀버스로 혼잡도가 더욱 기증되고 안전 문제

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4일 국토부를 직접 두정역으로 불러 시·도의원, 주민대표, 천안시와 함께 합동점검을 갖고 국토부 철도역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두정역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등 사업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철도역 출입구 등 역사보완 방안 마련' 연구 결과, 두정역이 혼잡도와 접근성에서 최저치인 F등급으로 평가되면서,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다. 이후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두정역 북부개찰구 설치사업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설계비 10억을 반영시켰고, 올해 3월에는 강호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만간 있을 천안시와 시설공단간의 협약 체결이후에도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천안시,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의를 갖고 천안시와 철도시설공단 간의 이견을 중재해왔다. 마침내 사업이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양측은 조만간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비는 당초 100억 원 규모로 추정됐지만, 최종 사업규모와 사업비는 설계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하루 평균 4,000명으로 계획된 두정역이 현재 이용객이 1만 7,000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나면서 북부개찰구 개설을 통한 이용인원 분산은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이사회 통과를 지역주민과 더불어 환영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조만간 있을 천안시와 시설공단간의 협약 체결이후에도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밝혔다.

천안=최영진기자

청양군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청양군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청양군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청양군의회(의장 이기성)는 23일 10시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2월 13일까지 21일간 열릴 예정이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18년도 군정연설을 비롯해 조례안 29건, 승인안 2건을 상정, 각 위원회별로 심사하게 된다.

이기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포항 지진피해에 대한 아파까움과 함께 하루빨리 정상화 되기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고, "수확의 계절이 끝나고 손꼽이 시리지는 초겨울 문턱에서 제7대 군의회도 마지막 정례회를 갖게 되었다"며 "2018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뒤돌아보며 2018년도 새해를 설계하는 2017년도 마지막 정례회인 만큼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적극성을 강조하면서 정례회 동안 최선을 다해 줄 것을"을 당부했다.

이어 "건강한 가족과 개인의 행복도 높이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족의 건강과 개인의 행복은 사회라고 하는 체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와 체계와 구조를 건강하게 운영해야 할 책무가 지방자치에 있음에도 당진시는 연구도 실행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당진 시의

양기립 의원은 "당진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1,573억 원으로 총 예산 중 개인상담은 2,102건, 집단프로그램 상담은 4,203건, 지원 서비스는 1,228건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상담의 경우 지역사회와의 심리상담 전문 상담소와 연계를 통해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이제는 당진시가 개인과 가정의 상담을 통해서 개인의 건강과 행복도 높이고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당진=최근수기자

김종문·서형달·이공희 의원, 행복나눔 봉사대상 수상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김종문 의원(천안4)은 올바른 충남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터넷·개임중독, 음란물 등 학교내 인터넷 유해물의 기술적 차단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 ▲충남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 ▲도민인권 증진에 관한 조

이정복기자

김종문, 서형달, 이공희 의원이 23일 국회 현정기념관에서 제4회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은 주최한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은 국가와 지역사회 행복지수 발전에 중심이 된 인물들의 공적을 기리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다. 시상식에는 김종문, 서형달, 이공희 의원이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 광역의회발전부문에서 대상을 수여했다.

김종문 의원(천안4)은 올바른 충남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터넷·개임중독, 음란물 등 학교내 인터넷 유해물의 기술적 차단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 ▲충남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 ▲도민인권 증진에 관한 조

이정복기자



청양군의회(의장 이기성) 제24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가 열렸다.

김정환기자

청양초 학생들, 청양군의회 현장체험학습 방문



학생들은 본회의장을 둘러 본

후 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설명 듣고 현재 진행 중인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기성 청양군의회 의장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지방의회 및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간

략한 질의 시간을 가졌다.

청양=정상범기자

충남도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급증

“국가·지자체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충남도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충남연구원 정목식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82호에서 최근(2013~2015) 충남 지역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는 연간 10억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농작물로는 벼, 사과, 채소류 등이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피해액 규모는 서산시와 태안군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공주시, 서천군, 청양군 등은 증가 추세를,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등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농작물 피해농가들은 야생동물 보호정책 때문에 개체수가 증가해서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

는 주장이다.

정 연구원은 “2015년도 충남 전체 야생동물 포획수는 42,729마리로, 고로니가 21,683마리(5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까치(23.1%), 참새(5.7%), 꿩(4.7%), 옛돼지(2.4%), 청설모(2.0%) 순으로 포획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증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는 천적 복원과 먹이자원 관리를 통해 환경수용력을 낮춰줘야 하는데, 천적 복원이 어려울 경우 사냥과 같은 방법으로 적정 수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재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비현실적 보상체계, 포획관리 인력 부족, 야생동물 관리 기준 부재, 전문인력 부족 등에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충남 도내 6개 시·

군(공주시, 천안시, 아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에만 피해보상 조례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렇지 않은 나머지 9개 시·군은 피해 보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또한 조례가 있다하더라도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피해보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국내에는 야생동물 피해 저감을 위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및 관리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이며, 심지어 전문가를 양성할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트래블아이어워즈는 문화마케팅연구소 주관으로 여행정보를 서비스하는 관광플랫폼인 트래블아이에서 관광산업의 지역별 편차를 지표화한 ‘지역호감도’를 기반으로 지역호감도, 축제, 특산품, 음식, 전통시장, 관광시설, 시티투어, 관광마케팅 등 총 8개 부문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전국 22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지역호감도’라는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1차 평가 후 관광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2차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8개 부문 24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전·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랙거를 이뤄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지진 등 긴급한 재난 발생 시 수신기능을 차단한 휴대전화에도 재난 문자를 강제 전송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쟁발발 시에만 재난 문자 강제전송이 가능하다.

재난 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2세대(G) 휴대전화 59만대도 각 지자체에 전화번호를 등록해 재난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하는 3G 휴대전화 540만대, 4G 204만대 사용자에게는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해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진에 취약한 팔로티 건물 등에 대해 호당 4000만원까지 융자를 하는 등 내진보강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480억원을 긴급 편성해 과손주택·복구·신규주택 구입자금 융자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유실된 경우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반파는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원 규모가 각각 확대된다.

벽에 균열이 생긴 민간주택 등 1342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는 한편, 점검결과 위험 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피해자 부담 없이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27일까지 정부 부처가 협동으로 실시하는 ‘중앙 재난피해합동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초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진 대응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마련한 후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18~2022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피해복구와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만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것은 즉시 수용하고, 오해가 있다면 행정 안전부 중심으로 피해 주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불안감을 덜어드린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8

김정환 기자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정●●

학부모연수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24일
오후 3시 대전
교육과학연구
원에서 열리
는 '2017년 부
모-자녀 공감 소통을 위한 학부
모연수'에 참석.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김경훈 대전시
의회 의장= 24일 오전 11
시 노은농수
산물도매 시
장에서 열리
는 제13회 행복기독 사랑의 김
장담그기 행사에 참석.

동구행정동우회 월례회의



한현택 동구청
장= 24일 오
전 11시 30분
가양도서관에
서 열리는 동
구 행정동 우
회 월례회의에 참석.

대형폐기물 수거 현장행정



박용갑 중구청
장= 24일 오
후 2시 중촌동
일원에서 대
형 폐기물을 수
거 현장 행정
을 펼치며 주민의견을 수렴.

복수동행정복지센터 기공식



장종태 서구청
장= 24일 오
후 2시 '복수
동행정복지센
터 신축공사
기공식' 참석.

유성구합창단 후원금 기탁식



허태정 유성구
청장= 24일 오후 2시 구청
행복사랑방에
서 열리는 유
성구 합창단
후원금 기탁식에 참석.

중리필빛이씨장 서포터즈 발대식



박수범 대덕구
청장= 24일 오후 1시 30분
한남대학 교
서의필홀에서
열리는 중리
필빛이씨장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석.

이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광역시는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을 기념하고 이동학대 근절에 대한 시민 의식 향상을 위해 23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학대신고의 무자,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관으로 '이동학대가 없는 대전광역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유공자 표상, 캠프리그리피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대전시는 노용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동이 안전한 도시 대전 만들기'에 시민과 아동단체, 아동복지시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우리 대전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반응형 웹'으로 전면 개편

PC · 태블릿 · 스마트폰 등 다양한 IT 기기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대전광역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도 홈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전면 개편하고, 오는 11월 2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반응형 웹(Web)은 각각의 기기(PC, 모바일, 태블릿 등)에서 웹에 접속할 때 기기의 화면크기에 맞고 보기 좋게 자동 정렬되는 서비스다.

시는 대표홈페이지 등 43개 특화페이지에 반응형 웹을 적용해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IT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과 PC로 이원화 되었던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

합하여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그 동안 PC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교육, 시설, 농기계 대여 예약 서비스인 'OK예약서비스'를 접수에서 결제까지 스마트폰 등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시는 관광을 안내하는 대전관광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했다. 이는 우리시 문화, 관광, 체육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시별 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개선했다.

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관심이 많은 도보 여행길을 대전관광 홈페이지에 통합 구축하고, 전문작가를 활용해 추천코스를 시민의 입장에서 여행할 수 있도록

보다 풍성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시민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곤충생태관 등 신규사이트를 구축하고, 웹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한밭수목원 내 조성된 곤충생태관 홈페이지를 개설해 시민과 곤충생태관의 소통의장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의 인증을 획득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대전농협 임직원 우리지역 배 팔아주기 개최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 밑거름"



대전농협 임직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 팔아주기 위해서 앞장섰다.

농협경제지주,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NH농협은행 대전영업부, NH농협생명·손해보험 등 농협 전 계열사 임직원은 우리 지역 대표 농산물인 배를 올해 평년대비 30% 이상 생산량이 증가했으나, 청탁금지법 시행과 경기침체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약 3500kg을 구입했다.

안병서 농협대전지역본부장은 "대전지역 대표 농산물인 배를 우리 지역 판매에서 먼저 소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 실시를 통해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장종태 서구청장 대상 수상

장종태 서구청장이 23일 국회 현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 위원회(위원장 김영준)가 주최하고

시사연합신문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에서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심이 된 단체장을 선정해 매년 시상해 오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지역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한 단체장을 수상자로 선정하는 행복매니페스토 상이 제정됐으며, 전국 공모를 통한 열띤 경쟁 속에 장종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장 청장은 취임하면서 6대 분야 67개 사업을 약속했고, 현재 약속사업의 98.5%를 실천했으며, 또 '행복드림 릴레이'를 직접 제안해 범국민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조심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마음으로 구민과의 약속사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전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과 함께 가치 있는 변화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새마을지도자유성구협의회, 11월 아간방법순찰 실시 새마을지도자유성구협의회(회장 강전일)는 11월 우리동네 안전 지킴이 활동 일환으로 밤8시 이후부터 5개동(진잠동, 운천1동, 노은1동, 전민동, 구주동)에서 모범 아간순찰을 시행한다. 수능전후로 아간방법활동을 강화해 겨울철 안전하고, 주취자 등의 생활안전을 보호한다.

대전시설공단 역전지하도 상가 고객휴식 '트레일존 마당' 오픈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은 역전지하도상가에 고객 휴식을 위한 '트레일존 마당'을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트레일존 마당'에는 공연무대, 고객지원센터, 건강카페 등과 함께 직접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손쉬운 쇼핑이 가능한 3D 가상 피팅시스템을 대전 최초로 도입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서도 앞장서고 있다.

공단 김근종 이사장은 "1981년 역전지하도상가에 준공된 이후 처음으로 고객쉼터가 조성된 만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곳이 시민들의 문화와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 침체된 역전지하도상가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트레일존 마당 공연장에서는 오는 11월 23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매주 목·금요일 오후 2시~4시 버스킹, 대중가요·7080 풍기타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영호 기자

유성구 열매마을6단지
금연아파트로 지정 · 운영

대전 유성구 보건소소장 최경만은 23일 열매마을6단지아파트를 제1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운영하기로 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현판식에는 허태정 유성구청장을 비롯해 열매마을6단지아파트 윤지상 입주자대표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축하했다.

또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 인내스티커를 부착하고, 3개월 간의 흡보와 계도를 거친 후 보건소 금연지도원이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자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구는 지난 16년 12월 열매마을 9단지 아파트를 시작으로 대전시 자치구중 최다인 17개 아파트 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지정·운영으로 6단지로만 금연아파트는 입주민 스스로가 간접흡연에 방과 금연문화를 실천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단속보다는 흡보와 계도에 힘써 주민 갈등을 줄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이번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건강하고 체적한 아파트가 되는데 입주민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함께 행복한 건강도시 유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효문화마을관리원, 시민안전 소방훈련

대전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원장 오숙환)은 23일 남부소방서 산성119안전센터와 협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객실에 화재 발생을 가정해 신속한 초기 대처로 내방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성기 효문화과장은 자위소 방대장으로 편성해 14명의 합동 진압반을 투입해 화재 발생 소화기 사용, 객실 이용자 대피, 소방차 출동 등 화재 조기 진화 방법을 훈련했다.

김태선기자

구민의 평등한 학습권 확보

이전시된다.

특히 어르신들이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오랜 세월 기운 속에 품어온 생각과 감정을 써내려간 섬세한 글귀는 방문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기초교육을 통한 구민의 평등한 학습권을 확보하고 비문해자의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해 2017년 교육부 성인문해

교육사업인 행복동구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화전은 강사와 학습자간 상호동행(上慰同行)의 결실이며,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해가는 학습자들의 의욕과 간절한 욕망에 기초한 것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구민들과 함께 우리 행복동구 문해교실에서 만학의 즐거움을 느끼고 계신 어르신들이 이루는 작은 기적들을 공유하며 행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동구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개최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 기념 캠페인 전개

“올바른 음주문화 확산 노력”

웹으로 전개되었다.

음주에 지나치게 관대한 문화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음주폐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5개 권역으로 나눠 개최되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 11월 1일 강원도 평창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경남마산, 서울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11월 29일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된다.

캠페인은 크게 4개 ZONE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차

게 구성되어, 우리가 평소 간과하고 있던 잘못된 일코를 상식과 음주폐해의 위험성 등을 스스로 되새겨보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대전시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음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무절제한 음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올바른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국장은 또 "연말 지나친 음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절제하는 습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봉관 기자

이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광역시는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을 기념하고 이동학대 근절에 대한 시민 의식 향상을 위해 23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학대신고의무자,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관으로 '이동학대가 없는 대전광역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유공자 표상, 캠프리그리피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대전시 노용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동이 안전한 도시 대전 만들기'에 시민과 아동단체, 아동복지시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우리 대전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년과장

대전광역시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11월 23일 오후 2시 대전역에서 '음주폐해 예방의 달 기념 캠페인'을 전개했다.

“올바른 음주문화 확산 노력”

웹으로 전개되었다.

음주에 지나치

대산항 경쟁력 강화 민관단체 '한목소리'

서산 대산항 마린 홍보관 등 배후 지원시설 조성 위해 건의·상생협력 촉구

서산시 발전의 대동맥이자 원동력인 서산 대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단체가 모여 한목소리를 냈다.

서산시는 22일 서산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산 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기업, 단체장 간담회를 시청 중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서산시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서산상공회의소 그리고 CIQ기관을 비롯해 대산석유화학기업, 하사역, 도선사협회, 예산, 해운대리점업체 등 대산항 유관기관 및 기업·단체장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산 대산항 발전 계획을 비롯해 각 기관·기업·단체별 사업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과 협력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서산 대산항의 수출입 화물, 선박 입출항, 부두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항만 내 화물과 입출항 선박이 지속 증가



하는 만큼 항만서비스를 개선하고 주변 환경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국제여객선 취항 등으로 새로운 공

간으로 재탄생하는 서산 대산항의 기능 및 위상 강화를 위해 마린센터와 홍보관이 결합한 마린 홍보관 등 배후 지원 시

설 조성을 해양수산부, 충청남도에 건의하고,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체 등에도 상생협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2017년 한해 서산 대산항의 성장 및 성과, 미비점 등을 되돌아보는 한편, 내년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준비사항과 활성화 계획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원섭 시장은 전국 6위의 물동량 처리능력을 가진 서산 대산항에 마린 홍보관 등 배후 지원시설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기업·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대사회(서산 대산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윤영인)는 항만 주변 정화작업, 회합행사 개최,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서산=김정현기자

밥맛 일품 당진쌀 몽골 수출길 올라

23일 농업회사법인 주미소미, 당진쌀 17톤 수출

해풍을 맞고 자라 밥맛이 일품인 당진쌀이 23일 몽골 수출길에 올랐다.

당진시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인 주미소미(대표 이태호)는 이날 현지인들의 인사를 사로잡을 2017년 산 히도메보레 품종 등 당진쌀 17톤의 무사고 향과와 현지에서의 인기 판매를 기원하는 상차식을 진행했다.

주미소미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약 40톤기량의 고품질 당진쌀을 충동지역과 아프리카 등지에 지속적으로 수출해 왔으며, 올해도 지난 3월 두바이에 약 6톤의 당진쌀을 수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충남도, 당진시와 연

계해 잠비아 농업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 수출 마케팅을 활발히 벌여오고 있다.

당진시에서도 지난 9월 몽골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몽골당진쌀 수출을 적극 지원했다.

특히 내달 12월 몽골 현지에서 열릴 예정인 당진 우수 농특산물 흥보=․판촉행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당진쌀은 이미 국내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만큼 지속적으로 수출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소상공인 자립기반 경쟁력 강화

하반기 이자보조 지원 신청접수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웅자금 이자를 보조해준다고 밝혔다.

군은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1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웅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2017년도 하반기 이자보조 지원은 내일 1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웅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청양군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부 자금 웅자를 받은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단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2017년도

하반기 이자보조 지원은

내일 1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웅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청양군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부 자금 웅자를 받은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단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군은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1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웅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2017년도 하반기 이자보조 지원은

내일 1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웅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청양군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부 자금 웅자를 받은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단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2017년도 하반기 이자보조 지원은

내일 1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웅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청양군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부 자금 웅자를 받은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단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 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

‘산·관·학 교류회 및 워크숍’

신성대, 네트워크 통한 기술개발 성과물 공유 등



신성대학교(총장 김병묵)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용합 교육관 중강당에서 ‘제16회 산·관·학 교류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그간의 산·관·학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개발 성과물을 공유하는 동시에 학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으며 행사에는 김홍장 당진시장, 이종윤 당진시의회 의장, 고현수 대전·충남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청원사무소장과 이병하 신성대 학교 설립자겸 이사장, 김병묵 총장 및 대학 주요 보직자들을 비롯한 200여 명의 기족회사 대표이사들이 참여했다.

1부 행사에서는 ICES 2017 국제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상장 전수식을 시작으로 LINC+사업

협약기업 동판 수여식 및 ‘대학-기업-학생’ 3자 협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명준 소장 초청 특강, 산학 협력 성과 전시 참관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신성대학교의 사업별 행사가 마련되어 WCC 사업 3D 프린팅 체험, WCC 글로벌 프린터어 프로그램 우수 성과 및 설명회, LINC+사업 드론 시뮬레이터 운영 시연, 창업 보육센터 입주기업 소개, 학교기업 지원사업 신성 바이오 비누 만들기 체험 및 신성 베이커리 빵 시식 체험,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 매칭데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당진=최근수기자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중소기업 애로 청취·자문 제공



호서대학교(총장 신대철)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최근 충남 태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입주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바로 자문을 제공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전원과 80여명의 원우들이 함께 했다. 특히, 이날 자문은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공공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원우들이 기술경영 수업을 통해 배운 지식을 애로기업들에게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행사에서는 주천마, 주씨 케이엘, 주생명바이오텍, 주동아

오토모티브, 도피오 등 5개 기업이 기술사업화와 R&D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애로 사항들을 들어냈다. 바로 이어진 자문을 통해 대량생산을 위한 제휴처를 직접 소개 받기도 했고, 현재 보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 분야와 마케팅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이날 참석한 기업 대표는 “교수 진과 원우들께서 우리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는 것에 감사하다.”며 결론에 대한 큰 민족감을 나타냈다.

아산=리량주기자

백석대학교, 유학생 약 180명 대상

유학생 위한 ‘기프트박스’ 전달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는 11월 22일 교내 기숙사 믿음동 앞에서 타지에 나와 고생하고 있는 백석대 유학생 약 180명을 대상으로 ‘기프트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마련된 기프트박스는 대학 교직원, 백석대학교 교성도들이 각자 빙상을 짐으로 가져가 유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물품을 여성, 남성으로 구분해 가득 채워 준비했다.

기프트박스 속에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월동용품과 생활필수품, 간식 등 다양하게 준비했으며, 박스를 열어본 유학생들의 입가엔 행복의 미소가 번졌다.

천안=김정환기자

한-ASEAN, 지재권 분야 협력도 확대

특허청, 한-ASEAN 고위급 회담 개최

내년부터 한-ASEAN 특허청장 회의가 정례화되고, ASEAN과 지재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하는 등 ASEAN과의 지재권 분야 협력이 주요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특허청(청장: 성운모)은 지난 11월 15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지재권 분야 한-ASEAN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김태만 차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 회담에서 특허청은 한-

ASEAN 정장회담 정례화,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을 제안하였고, 향후 종점 협력 항목으로 한국특허청 심사결과를 ASEAN이 활용하는 방안, ASEAN 국가를 위한 지재권 전략 컨설팅 제공, ASEAN 중소기업을 위한 지재권 활용 역량 증진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양측은 ASEAN 개별국의 내부승인 절차가 마무리하는 대로, ASEAN+1 형태의 협력체제의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는데

합의하였다. 양측이 합의한 일정대로 협의가 진행된다면 2018년 1/4분기 내에 양해각서의 서명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 밖에 특허청은 이번 ASEAN+1 고위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와 고위급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여 ASEAN 개별국과의 양자 협력도 함께 진행하였다. 특히, 필리핀과는 지식재산 전 분야의 협력 확대를 다짐하는 ‘포괄적 지재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특허청 김태만 차장은 “한-ASEAN 지재권 협력이 앞으로 본격화된다면, 이 지역의 지재권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ASEAN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가 강화되는 상생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지재권 협력이 한-ASEAN 미래공동체 구상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봉관기자

포항 지진 관련, 문화재 피해상황 최종 마무리

문화재돌봄사업단, 점검·2차 피해 예방하기 위한 신속한 응급조치 마쳐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관계전문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돌봄사업단 등과 함께 지난 15일 발생했던 지진의 영향권인 영남지역(경주, 포항, 영천·인동 일부 등)에 소재한 문화재 총 1,220건(국가지정문화재 243건, 시도지정문화재 등 977건)에 대한 안전점검을 22일 최종 마무리했다.

23일 현재 문화재 피해는 16일

발표했던 23건에서 8건이 추가된 총 3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1건, 시도지정문화재 등이 20건이다. 기와 틀락(12건), 벽체균열(13건) 등 대부분 경미한 피해로 확인되었다.

문화재 돌봄사업단은 점검과 동시에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속한 응급조치도 마친 상태이다.

문화재청은 경주 양동 무첨단(보

물 제411호) 등 피해사항이 경미한 16건 중 11건은 이미 복구를 마쳤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23일부터 문화재 돌봄사업단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신속하게 복구할 예정이다. 또한, 포항 보경사 적광전보물 제1865호 등 15건은 긴급보수비 등 국비지원을 통해 세부 복구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약해 드리께,
최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을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민대로 26-26 대원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대통령기 제37회 국민독서경진 대전시예선대회 시상식

우수독후감, 편지글부문 39편 시상 및 독후감 발표



오는 23일 오후 2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소극장에서 흥미숙 대전시교육청 유초등학교와 장학관, 한재희 대전시 새마을회장을 비롯한 내빈 및 초·중·고등학교, 일반부 수상자, 새마을문화회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통령기 제37회 국민독서경진 대전시 예선대회 시상식을 개최

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의 정서함양 및 독서생활화 저변확대를 위해 문고종합평가부문, 독후감부문, 편지글부문, 새마을문화부문에 대해 구애션을 거쳐 추첨된 우수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 우수작으로 선정된 독후감 24편, 편지글 24편을 시상했고 문고종합부문 최우수에

는 새마을문화부문지부가 수상했으며 새마을을 작은도서관 운영부문, 문고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다.

또한 독후감부문 고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명석고등학교 오현민 학생의 “대한민국이 끝난다”를 읽고, 편지글부문 초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전매봉초등학교 성인희 학생의 “사진속의 행복한 나”라는 제목의 우수작 발표가 이어져서 참석자들 기쁨에 뜨거운 김동을 선사했다.

박경수 시문고회장은 “대전새마을문화부문지부가 축제로 대회를 개최했는데 대회에 참가해준 모든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좀 더 대실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책읽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국립공주대와 학술포럼 및 문보인의 날 행사 가져

충남문화재돌봄사업단, 제20회 문화재보존 학술포럼



충남문화재돌봄사업단은 11월 18일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열리는 제20회 문화재보존 학술포럼 및 문보인의 날에 함께 한다.

이 날 행사는 우리나라 중요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을 다룬 중요 포럼이다. 또한 한반도 지진이 잦아지는 지금 지난 해 경주에서 일어

난 문화재 피해와 대책 등과 피해복구에 가장 중요한 돌봄사업단의 강의가 그 내용이다.

충남문화재돌봄사업단에서는 송병수 단장의 돌봄사업단 사업과 이주목 전문모니터링의 모니터 기법에 대한 강의가 있다. 공주대 현장실습학생(신현영)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충남문화재돌봄사업단 직원은 매달 사랑을 담은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 공주대 현장실습학생에게 전해지는 장학금에도 함께해 지속적인 사회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김정환기자

롯데백화점 대전점, 겨울상품 할인행사 ‘풍성’

홈페션 겨울상품 특집 등 겨울상품 행사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겨울 정기 세일의 주말을 맞아 다양한 겨울상품 할인행사와 프로모션을 마련한다.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모션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수능수험표를 지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1만원 이상 구매시 롯데상품권 5천원을 증정하는 수능특집 사은행사가 28일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수험표 지참고객들을 대

상으로, 1층 화장품매장에서는 프리미엄, 비오템, 숨, 키엘 등 각 브랜드별로 무료샘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베네통, 나이스클립, JJ지고트, 씨 등 영캐주얼과 이웃도어, 스포츠 등 각 브랜드별로 할인 혜택이나 감시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송병배기자

드후이벤트 게시판에 관련 글을 댓글로 남기는 방식이다.

미래엔 서해 에너지는 이번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 중 우수 콘텐츠 업로드 고객 100명을 선별해 모바일 상품권 2만 원을 증정한다.

미래엔 서해 에너지는 고객들의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스요금 조회’, ‘요금 납부’, ‘서비스 신청’ 등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부여국유림관리소, 신청사 기공식



인해 대전·세종·충남에서 방문하는 민원인과 내부직원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이를 개선하고자 1.9㏊의 부지에 숲과 어울리고 백제의 미가 부각되는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신축된다.

아울러, 청사 일원은 도시숲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숲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방하고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유아들의 인성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박봉관기자



제4회 국가안전방재포럼 개최

‘동북아의 복합 안보위기와 국가안보 전략’ 주제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군사연구원(원장 최북진 교수)이 23일 대학 30주년 기념과 314호에서 ‘동북아의 복합 안보위기와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 4회 국가안전방재포럼’을 개최했다.

대전대 군사연구원과 한국동북아학회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대전대 이종서 총장을 비롯해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오수열 한국동북아학회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이종서 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북핵 문제와 동북아의 안보질서 변화’와 ‘안보위기와 위기관리 리더십’ 및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발표가 각각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의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심도 깊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발표는 30주년 기념과 내 강의실 및 회의실을 통해 개최됐으며 이후 만찬을 통해 학술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정복기자



공주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주경찰서(서장 육종명)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 ~ 25.) 맞아 22일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동으로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아산시, 온양온천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아산시는 지난 22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천안아산지사, 순천향대학교와 온양온천시장에서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대전보훈청, 11월 규제개혁 연구모임 실시 대전지방보훈청은 23일 대전보훈청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제작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동영상 시청과 직원들이 제출한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검토하는 11월 규제개혁 연구모임을 실시했다.



청양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 실시 청양경찰서(서장 남경순)는 지난 22일 교통사고예방과 농어촌지역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운전면허 취득편의를 위해 경찰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을 실시했다.

졸음쉼터 진·출입로 짧고 안전사고 위험 높아

[인쿠르트] ‘지진에 대한 공포감’ 대해 설문 조사 결과

졸음쉼터 이용 중 차량, 보행자, 시설물과의 ‘추돌·충돌사고 경험’이 있었고, 33명(70.6%)은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위험을 느낀 것’으로 나타나 개인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졸음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와 전국 졸음쉼터 45개소*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응답자들은 주로 ‘오후 2~4시’(200명, 40.0%) 사이에 ‘수면’(242명, 48.4%)을 목적으로 ‘2~3시간 운전 시 1회’(380명, 76.0%)의 빈도로 ‘5~15분’(215명, 43.0%) 정도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 침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017-167호, 이하 ‘지침’) 상의 기준보다 짧아 졸음쉼터 진·출입시 고속도로 본선 주행 차량과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한, 7개소(15.6%)는 ‘진·출입로 폭’이 ·국토교통부 도로설계 편법(2014)에 따른 기준(3.25m) 보다 좁아 졸음쉼터 내 주차차량

및 보행자와의 추돌·충돌사고 위험이 있었다.

‘지침’에 따른 졸음쉼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31개소, 68.9%), ‘주차차량 보호시설’(18개소, 40.0%), ‘CCTV’(23개소, 51.1%) 등이 상당수 쉼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주차장 측면의 보행자 안전공간’은 모두 미설치되거나 폭이 좁아 시설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쉼터의 주 방문목적인 ‘화장실’은 20개소(44.4%)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9개소(20.0%)는 그늘을 제공하거나 우천 시 비를 피할 수 있는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중·대형 졸음쉼터 *에만 ‘파고라’ 설치가 의무

화되어 있어 소형 졸음쉼터에도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침’에 따른 졸음쉼터 내 시설 점검표를 비치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후 관리 실적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2개소는 ‘화장실 관리 점검표’만 비치*되어 있었고, 조사대상 45개소 모두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 졸음쉼터 내 안전·편의시설 보완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안전시설 보완 ▲편의시설 설치 확대 ▲시설 관리·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태선기자

“CCTV 목적 외 근무태도 감독 활용은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자체감사 시 CCTV 활용 실태 점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청장에게 경찰청 자체 감사 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보가 요건 및 절차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 내 활용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권고했다.

A경찰관(진정인)은 경찰서 청문 감사실 담당자(피진정인)가 본래 용도와는 달리 근무태도를 감찰할 목적으로 파출소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사용했다며, 인권침해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상황근무를 설 당시 근무를 태만 하였다는 점보가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CCTV 영상을 통해 진정인의 비위를 적발하는 것은 감찰 조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 범위로,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문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침구제 제1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CCTV 영상정보가 반드시 필요했는지 따져봐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자료 요청 등이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약 한 달간 모든 영상자료를 입수하는 행위는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CCTV, 전자 카드, 지문인식, 위치추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필요 최소한, 목적 와 활용 금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인의 비위 사실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날짜와 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영상자료를 확보한다면, 모든 파출소 직원들의 평상시 근무 모습이 피진정인에게 가감 없이 노출될 수 있고, 이는 ‘전자장비’를 이용한 근무태도 감시’와 유사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피진정인의 CCTV 영상정보를 파출소에서 입수할 때 공문을 시행하지 않는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파출소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기록·관리 대장을 작성해야 할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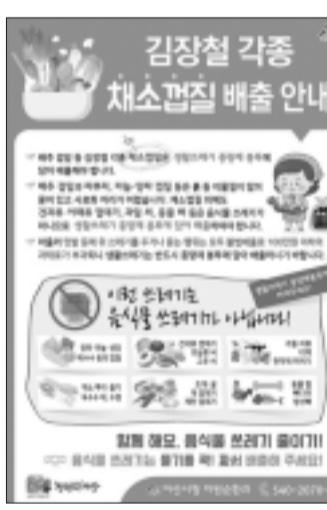
앞서 인권위는 CCTV를 활용한 근무 감시와 관련,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2007. 11. 12.),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6. 12. 27.)했다. 미화원 무단 외출 여부 확인을 위해 시설 관리단 소장이 CCTV를 활용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설물 안전 관리나 도난방지 등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동의 없이 직원 근무 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2017. 2. 8.)했다.

김정환기자



아산시, 본격적인 김장철 맞아

김장쓰레기 일반종량제봉투 사용 안내



는 배춧잎, 쪽파, 대파, 마늘, 양파 등의 뿌리나 껌껍질과 이물질이 묻은 채소류이며, 배출 시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김장쓰레기 발생량의 최소화를 위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자연건조 등 부피를 줄여 배출할 것”을 당부하며, “김장쓰레기의 적기 수거로 시민들의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장(절임, 양념)과정에서 나온 찌꺼기, 무청, 무등 흙이 묻지 않은 것들은 음식물수거용기 또는 음식물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산=리량주기자

계룡건설 ‘희망 2018 나눔캠페인’ 성금 1억원 기탁



계룡건설이 2017년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돕기를 위한 나눔캠페인을 통해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계룡건설 이승찬 시장은 11월 23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희망 2018 나눔캠페인’ 사랑의 운동탑 제막식에 참석하여 ‘희망

으로 계룡건설은 매년 기부활동 참여를 통해 나눔캠페인에 동참해 왔다.

또한, 지난 추석 명절에는 가족과 이웃의 운정이 절실히지만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예비역들을 위한 위문금 1,000만원을 육군본부에 전달했으며, 특히 2011년부터 시작한 나라사랑 보금자리사업에 매년 1억원씩을 후원하며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승찬 사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이번 성금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담아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에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더 행복한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2018 나눔캠페인’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이번,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은 연말연시를 맞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시민들의 온정과 사랑을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성금 모금운동

으로 계룡건설은 매년 기부활동 참여를 통해 나눔캠페인에 동참해 왔다.

또한, 지난 추석 명절에는 가족과 이웃의 운정이 절실히지만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예비역들을 위한 위문금 1,000만원을 육군본부에 전달했으며, 특히 2011년부터 시작한 나라사랑 보금자리사업에 매년 1억원씩을 후원하며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승찬 사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이번 성금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담아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에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더 행복한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공주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홍보 강화

경량칸막이 설치 공동주택 입주민 대상 교육·홍보 추진



으로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홍보 안내문 부착 ▲경량칸막이 설치 세대 안전 피로그램 배부 ▲입주민 대상 홍보 설명회 및 이벤트 개최 등이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피로그램(그림 문자) 스티커를 경량칸막이 설치 세대별 입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경량칸막이 설치 아파트 플래카드 게시

▲엘리베이터 등 공동이용시설 홍보 안내문 부착 ▲경량칸막이 설치 세대 안전 피로그램 배부 ▲입주민 대상 홍보 설명회 및 이벤트 개최 등이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피로그램(그림 문자) 스티커를 경량칸막이 설치 아파트 전 세대에 배부 할 예정이다.

공주=정상범기자

한밭대교(총장 송하영)는 22일 저녁 6시 30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2017년 재경 총동문회 정기총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한밭대교 재경 총동문회(회장 김수영)가 주최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서울지역의 한밭대 동문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송하영 총장을 비롯해 김만구 총동문회장, 대학 보교지수, 동문회 임원, 학생대표 등 20여명도 참여해 재경지역 동문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어서 송하영 총장은 “한밭대 90주년의 역사와 명성은 동문들의 땀과 노력이 스민 소중한 유산”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지역을 넘어 세계 일류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복기자



한밭대교(총장 송하영)는 22일 저녁 6시 30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2017년 재경 총동문회 정기총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한밭대교 재경 총동문회(회장 김수영)가 주최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서울지역의 한밭대 동문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송하영 총장을 비롯해 김만구 총동문회장, 대학 보교지수, 동문회 임원, 학생대표 등 20여명도 참여해 재경지역 동문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어서 송하영 총장은 “한밭대 90주년의 역사와 명성은 동문들의 땀과 노력이 스민 소중한 유산”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지역을 넘어 세계 일류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복기자

직장인 10명 중 9명 “결혼식 참석 부담되네”

<인크루트>조사결과… 죽의금 액수 평균 65,733원인 것으로 조사

직장인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인 결혼식의 죽의금 액수는 평균 65,733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35.7만원 등급에 을 흘수로 맞춰야 한다거나 1만원 단위로 전달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습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금액이 산출된 셈이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www.incnuit.com 대표 이광석)는 전국 직장인 478명을 대상으로 ‘죽의금, 얼마면 되겠니?’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

다고 23일 밝혔다.

응답자들에게 1회 죽의금으로 지출한 최대 금액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평균 263,704원이라는 답변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편, 결혼식 참석에 부담을 느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직장인의 92.3%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묻자, 45.6%의 응답자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주요한 부담 요소로 꼽았고,

이어 ‘시간적 부담(25.4%)’, ‘예식장 등의 거리적 부담(19.6%)’, ‘심리적 부담(9.0%)’ 순의 답을 내놨다.

하지만 부담을 느낄 경우라도 대다수는 나름의 성의 표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스럽더라도’ 참석한다는 답변이 4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죽의금만 보낸다(40.8%)’는 답변 또한 많았다. ‘죽의금을 전달하지 않고, (결혼식) 참석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1.9%에 그쳤다. 일부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11월은 결혼식 수기라고 불릴 정도로 유난히 결혼식이 많은 시기”라며,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지인의 결혼식 참석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바, 적정 죽의금을 참고해 소신껏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되며 좋을 것”이라는 설문소감을 밝혔다.

이정복기자



‘2017 당진 학생 예술 축제’ 성료

당진교육지원청 “꿈과 끼의 예술축제, 아름다운 학창의 하모니 펼치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은 지난 22일, 2017 당진 학생 예술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초, 중, 고 22개교의 24개 팀이 참가했고 합창, 기악 협주, 중창, 밴드, 댄스, 사물놀이, 기타 연주 등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는 당진에서는 처음으로 개

최된 종합 예술제로서, 380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고 8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관람했으며, 또한 한 행사 도교육청 홍보담당관실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당진 학생 예술의 역량을 충남 전역에 과시하는 기회가 됐다.

당진=최근수기자



천안교육지원청, 11월 목요강좌 개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원복)은 23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유·초·중·고 학부모 130여명을 대상으로 11월 천안교육기족 목요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강좌는 4차 산업혁명에 도래에 따라 미래의 변화를 인지하고, 자신만의 역량을 만들어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학부모와 함께 자녀의 미래의 교육방향을 고민하고 알아가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미래사회와의 변화와 자녀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에 따른 교육의 방향, 창의·융합사고의 유연화를 위한 교육의 방향, 역량중심의 융합적 교육의 방향 등에 대해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오기영 교수의 특강으로 자녀들이 만날 미래와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천안=채기병기자



태안원이중, 전국 모의재판 대회 대상 태안원이중학교(교장 김사례)는 21일 법무부가 주최하고 법질서 선진화과가 주관하는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바로잡기 위해 지난 9월 6일(수) 페이스북 코리아에 정정요청을 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23일(목) 자발적으로 신청한 시민·시청 담당자와 함께 페이스북 코리아(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를 방문해 세종시 이를 찾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이후 청업자이자 CEO인 ‘마크 주커버그’ 소환 등 온라인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이정복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준희, 이하 세종시청과 함께 ‘페이스북, 세종시 지명찾기 캠페인’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세종시 지명찾기 캠페인 게시물은 “평소 한국어

학생·시민과 함께 페이스북 세종시 지명찾기 캠페인 나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민과 학생들의 공감대 확산



것도 안됐어!”라는 반응과 계시물에 친구 소환 태그를 거는 등 세종시 이름찾기에 대한 세종시민과 학생들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세종여고 전혜림 학생은 “평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과 페이스북을 통해 한글을 가르쳐주는데,

거주지가 세종시가 아닌 충청남도 연기군 학생으로 표기되어 있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이를 설명하고 다시 비로잡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며, 외국인 친구들 또한 충청남도 연기로 표시되어 세종시 학생이나며 혼란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이름찾기 캠페인 게시물이 교육청 페이스북에 올리오자 ‘격려(격하게 공감한다)’, ‘전에도 민원 넣었는데 아무

것도 안됐어!’라는 반응과 계시물에 친구 소환 태그를 거는 등 세종시 이름찾기에 대한 세종시민과 학생들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세종여고 전혜림 학생은 “평소 한국어

부여전자고 학생들 대만 국외 연수 다녀오다 부여전자고등학교(교장 김호성)는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국외직업교육 체험학습을 대만에서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진행했다.



충남남부평생학습관, 다양한 환경지킴이 활동 실시 충청남도교육청 남부평생학습관(관장 김용진)은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으로 ‘의논해 기획단’(매주 금요일 샌즈(여중 및 연산중)을 운영, 지역 중학생들과 함께 ‘팀정호 쓰레기 줄이기’와 ‘폐현수막재활용’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환경지킴이 활동을 진행 중이다.

하모니언드림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성료 지난 21일, 아산시 여성회관 대극장에서는 아산시가 지원하는 하모니언드림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가 개최됐다. 이날 차준영지휘자를 비롯한 50명의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클래식, 영화, 뮤지컬의 대표적인 명곡 8곡을 연주했으며, 성악가 3명을 초빙해 협연도 했다.

김정환기자

문산초에 작은 학교

희망의 빛줄기 이어진다

문산초등학교(교장 장철순)는 지난달 1명의 전입생이 생긴 아래 지난 22일 3학년 학생 1명이 전학 와서 학교에 활기나 넘치고 있다.

작은 학교 살리기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특성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로 자연생태학교 운영, 개인별 스마트 패드와 드론 자급, 전교생 해외연수와 같은 다양한 교육활동 등을 공동학구인 서천읍의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를 돌며 신입생과 전입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문산초의 교육내용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지역의 학부모들이 점차 관심을 갖으며 전입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전입생 부모는 “문산초가 작은 학교만의 특성을 살리는 특별한 학교를 한다고 들었다. 자연친화적인 학교 환경, 개인별 맞춤 교육이 가능한 여건, 해외문화 체험이나 생태학교 운영과 같은 다양한 체험활동 등이 민족스러워 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철순 교장은 “문산초는 작지만 강한 학교로 변화하고 있다.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전교생 한 명 한 명을 특별히 키우겠다. 교육활동에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동정

1차 본회의



복기왕 아산시장=2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아산시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참석.

학술대회



김홍장 당진시장=24일 오전 10시 30분 신면면 금천리에서 열리는 금초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준공식에 참석, 오후 1시 기지지 줄다리기 박물관에서 열리는 당진과 대중국 교류 학술대회에 참석.

시·군의장협의회



이종윤 당진시의장=24일 오전 11시 서산시의회에서 열리는 충남시·군의장협의회에 참석.

김치 담그기 행사



한상기 태안군수=24일 오후 1시 태안읍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노인복지관 김치 담그기 행사에 참석.

협약식



이석화 청양군수=24일 오전 11시 청양공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면암 최익현선생 배 전 국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후, 오후 3시 30분 군청 상황실에서 청양군 여성축구단 후원 협약식을 갖는다.

미래교육 박람회



윤주역 청양교육장=24일 오전 9시에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미래교육 박람회 참석.



도고면 '희망·사랑' 김장나눔 행사

아산시 도고면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이용인)은 22일 제7회 희망·사랑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에는 행복키움추진단,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남·여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향촌을 살피고,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지원 사업, 농기계 순회 수리교류 등 50여명의 각 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 김치를 만들어 저소득취약계층인 독거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61세대 가정에 행복키움추진단 원들이 직접 전달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선도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종호)에서 절임배추 250포기를 후원했다.

이용인 단장은 "앞으로도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행복키움추진단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준찬 면장은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는 도고면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산=리량주기자

태안군 논물가둬 봄 '가뭄' 만전

우/리/동/네

일반 논 대비 24%의 물로도 모내기 가능… 이달부터 적극적 홍보

태안군이 내년도 봄철 가뭄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논물가두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논물가두기'는 가을걷이를 마친 논에 미리 물을 가둬두는 것으로, 비가 적게 와도 모내기 작업을 할 수 있고 저수지 물도 아낄 수 있으며 특히 물을 기운 논은 물이 많아 물기가 남아 있어 일반 논 대비 24%에 불과한 물의 양으로도 (3cm 깊이 물가두기 기준) 모내기 가능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또한, 논물을 가두면 도열병, 흰잎마름병, 이삭누룩병, 이화명나방 등 병해충과 잡초 발생이 줄어들며, 물에 의해 영양분이 공급되고 유기 물의 과다한 분해도 억제되는 등 농경환경이 더욱 좋아진다고 군은 밝혔다.



군은 올해 논 전 면적을 대상으로 '논물가두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논물가두기'의 필요성에 대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8개 읍·면에 논물가두기 홍보 현수막 총 32개를 설치하고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벗꽃 곤포사일리지 조기 수거를 지도하는 등 시전적·적극적 가뭄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태안군 전 역 8,354ha의 논에 6cm 깊이로 물을 가둘 경우 관내 모든 농가가 문제 없이 모내기를 할 수 있다"며 "최근 매년 봄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내년에도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스포츠줄다리기 매력 있어요

당진시줄다리기협회, 중학생 대상 강습회 열어

당진시줄다리기협회(회장 박서준)가 지난달 27일 송악중학교를 시작으로 중학생 대상 스포츠줄다리기 강습회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국줄다리기협회의 지원을 받아 이달 말까지 당진시 관내 중학교를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번 스포츠줄다리기 강습회는 중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줄다리기를 학교 스포츠 활동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습은 각 학교별 60명 내외로 1일 1회 40분씩 진행되는데, 지도강사 파견뿐만 아니라 스포츠줄다리기 용품인 경기용 줄 1조와 앵커 보호복 2벌을 무상으로 학교에 기증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교습에 동참한 학생들은 스스로 기지시줄다리기 같은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관심심을 깨우치며 줄다리기의 매력에 끌어졌다.

박서준 회장은 "스포츠줄다리기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당진이 줄다리기의 고장임을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이번 중학교 강습회를 계기로 내년에 열리는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에서는 중학교 스포츠줄다리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감자·콩·벼 대신 대체작물로 소득 으뜸

당진시, 논 이용 감자·콩 2기작 재배 시범사업 성과 우수

논에 벼 대신 감자를 조기재배한 뒤 감자 수확 후 콩을 심는 2기작 작부체계가 벼를 심는 것에 비해 소득이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논 이용 감

자·콩 2기작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벼만 재배했을 때보다 감자·콩 2기작이 2배 이상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최종군 농가 등 모두 세 농가가 참여해 당산리 721~29번

지 외 2필지 논(2만 8,248m²)에 3월 중순에 봄감자를 피종해 6월 하순 경 수확한 다음 7월에 다시 콩을 피종해 이달 중순 경 수확을 마쳤다.

농업기술센터가 시범농가들의 수확량 등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2만 8,248m²의 논에 벼만 재배했을 경우 소득이 약 1,587만 6,000원인데 반해 감자와 콩을 2기작 재배

했을 경우 소득은 3,562만 원으로 나타나 벼보다 2.24배 소득이 높았다.

다만 논에 감자와 콩 2기작 재배하기 위해서는 밭작물이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등 배수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감자 품종은 추백 또는 조 품을 심어 수확시기를 앞당기고 감자 수확 후 늦어도 6월 하순이나 7월 초순경까지는 콩 피종을 마쳐야 한다.

당진=최근수기자

화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리더교육 주민설명회 열려

청양군 화성면(면장 양근석)은 지난 22일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리더교육 및 세부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청양군청 및 화성면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 본부, 용역사, 화성면 추진위원회 등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원 및 미을리더의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주민 참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이 어려

졌다. 또 2019년까지 화성면 산정리 일원에서 추진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설계 중 모듬내 마실터 및 복지회관 건립, 중심가로 정비, 시장환경 개선, 마을안길 및 산책로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예산법무담당관 친절·청렴 아산만들기 동참



아산시 예산법무담당관(담당관)은 지난 21일 예산법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청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에게 친절과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소양교육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친절교육으로 방문 민원인 및 전화 민원 응대요령 등의 내용을 교육하고 부서 친절도를 점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내부 결의를 통해 '친절아산만들기'에 적극 동참했다.

또한, 청렴교육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 교육뿐만 아니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직윤리관 확립 및 내부 청렴도 향상을 다짐했다.

오재환 예산법무담당관은 "앞으로 친절과 청렴에 직원 모두가 더욱 신경을 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친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예산법무담당관 또한 적극 동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 농업인 고령화 시책 '호응'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 5113회·농작업 지원 사업 265회 성과

태안군이 추진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지원 사업', '농기계 순회 수리교류'의 농업인 숙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고령화 시책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사는 태안군 고령화 시책으로, 2015년 12월 부지소리를 개소했으며, 유흥·소원 주민들을 위해 내년 중 균형면에 중부지소를 열고 농업인 부담 경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촌 일손부족 현상 해소와 고령화 세대의 농작업 지원을 위해 태안군이 지난해부터 자체 시책으로 추진 중인 '농작업 지원 사업'도 큰

거두며 지난해 동기 4,330회 대비 18% 증가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군은 원거리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농업기술센터와 남부지소에 이어 2015년 12월 북부지소를 개소했으며, 유흥·소원 주민들을 위해 내년 중 균형면에 중부지소를 열고 농업인 부담 경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촌 일손부족 현상 해소와 고령화 세대의 농작업 지원을 위해 태안군이 지난해부터 자체 시책으로 추진 중인 '농작업 지원 사업'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농작업 지원 사업은 군이 보유

하는 일손부족 현상 해소에 따른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군은 농업인의 자가 정비능력 향상을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지난해 81개 마을에서 올해 161개 마을로 확대 추진, 총 1,65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2,808대의 농기계를 수리해 1억 1200만 원의 수리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는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지원 사업,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등에 추진 중인 각종 농업 관련 사업들이 최근 고령화와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가져야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인구의 감소 추세에 따른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 해소하고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각종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김정한기자

청양군 자살율 1위 탈출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충남도내 1위였던 자살률 낮추기에 온힘을 다한 결과 2016년 기준 도내 7위로 행복한 순위 하락을 맛봤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양군은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 자살률은 59.1명으로 도내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얻었으나, 2016년은 자살률 37.0명으로 도내 7위, 도내 자살감소율 2위를 달성했다.

청양군은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생명사랑 이동상담실 ▲군민 생명지끼기 생명지킴이 활동 ▲찾아가는 직장인 생명사랑 자살예방 교육 ▲농번기 소외계층 우울극복 프로그램 ▲자살예방 캠페인 등의 자살률 낮추기 위한 다양한 시책과 프로그램을 도입 실시해 온 결과로 분석했다.

군 보건의료원은 우울증, 자살생각,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분야의 조기진단을 통해 자살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12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업무연계를 통해 연 4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자살예방방법의체계를 열고 각 기관 별로 발굴된 고위험군의 치료와 관리에 도움을 주면서 제공하며 청양군민의 정신건강과 행복유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군은 연말까지 600여만원의 스트레스 검사기 설치하고 적극적인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살률 낮추기에 쉼 없는 박차를 기할 계획이다.

이석화 군수는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고 무엇보다 군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해 노력해 다한 결과

우리/동/네

화지중앙시장 '옛살비' 밤이 즐겁다

논산시, 1차별화된 맛과 음식 콘텐츠 개발 '총력' · 전통시장 활성화 '박차'



제6기 계룡농업대학 졸업식 열려

계룡시, 도시농업 전문인력 38명 양성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 22일 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졸업생, 가족 친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계룡농업대학 졸업식을 가졌다.

계룡농업대학 도시농업학과는 도시농업개론 및 다양한 도시 농업 유형과 농업의 전문성을 위한 토양관리, 작물생리, 병蟲害 방제교육, 미래 농업으로 떠나는 치유농업, 원예치료, 사회적 경제 등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지금까지 24회 102시간을 성실히 이수한 38명의 졸업생이 가족과 내빈의 축하 속에 명예로운 졸업증서를 받았다.

최일규(엄사면) 한성회장은 "농업대학을 통해 훌륭한 소통을 하며 즐거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문화 활동인 도시농업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졸업소감을 말했다.

이날 졸업식에서 농업대학 발전 및 지역활동 운영공로로 광미랑(엄사면)은 농촌진흥청장을, 최일규(엄사면)는 도자사표장을, 박희준(금암동), 박종근(엄사면), 김순희(엄사면)는 시장표장을 각각 수상했다.

특히, 졸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김행민(엄사면), 문용덕(엄사면), 광미랑(엄사면) 3명에게는 성적우수상을, 24회 교육에 모두 출석한 9명에게는 개근상을 각각 수여했다.

한편, 기술센터 관계자는 "계룡농업대학은 지난 2012년에 개교하여 그동안 16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앞으로 졸업생을 주축으로 도시농업이 확산되도록 지원하여 농업인과 도시민이 상생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군 농촌여성 문화 강좌 열려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2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여성 농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마무리 농촌여성문화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농촌여성문화강좌는 그동안 쌀가루 소비촉진 가공교육을 통해 개발된 쌀빵을 시식·평가하고,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창업한 회원들의 가공상품을 한자리에 전시하여 지역 농촌 융복합 산업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을 제시했다.

전시공간에는 용복합비지니스모델 경진대회 대상을 차지한 은골 끄락애영농조합법인, 농식품발전유공을 받은 송선팀의 활동성과를 비롯해 모시떡, 소고주, 쌀빵, 밭효식품, 한과, 조청류 등 28개 업체의 가공창업성공 사례까지 다양하게 전시되어 교육생들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특히, '4차산업 혁명과 농업·농촌의 이해'라는 주제로 문양근 대표(M코드컨설팅)의 1부 특강을 진행으로 다양한 농업의 4차 혁명의 사례 및 생활 속 현주소를 보며 상상력 지수와 감성 능력의 융합에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여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2부 특강에선 유조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쾌적한 집안환경을 꾸미기 위한 정리 수납법'에 대한 교육과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농촌여성문화강좌는 서천군농업기술센터가 농업·환경·문화를 지키고 농촌사회 활동을 주도할 지역 농촌여성의 권익신장 및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계룡시민아카데미 성료

인기강사 초청 · 삶의 지혜를 얻고 힐링 하는 시간마련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 21일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된 제2회 계룡시민아카데미 강연이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개그우먼 박지선씨를 초청해 고려대학교 교육 학과 및 재학 중 교사의 길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개그맨으로 데뷔하며, 자존감으로 행복해지는 진솔한 이야기를 특유의 유쾌하고 솔직한 입담으로 진행했다.

강연장에는 중고등학생과 시민 500여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으며, 참여한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도전 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시간이 됐다.

시는 올해 시민들의 꿈과 소통을 주제로 삶의 지혜를 얻고 힐링하는 시간을 위해 계룡시민아카데미를 처음 진행했다.

지난 10월에는 계룡시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미경 강사가 '꿈이 있는 사람은 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의 품격 있는 열린 학습의 기회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평생학습으로 행복한 계룡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논산화지중 암시장에 가보자!

논산시시장 황명선에 따르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일환으로 운영하는 음식문화특화거리 '옛살비'가 화지중앙시장에 개장했다고 밝혔다.

옛살비는 '고향'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로, 낮에는 사람들을 반기는 따뜻한 고향같은 전통시장이 되고, 밤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활기 넘치는 새로운 골목형 야시장으로 활바듬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음식문화특화거리 '옛살비'는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와 자생력 강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출발했다.

'옛살비' 음식문화특화거리는 매주 금, 토요일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12월 9일까지 운영하며, 지난 17일 열린 개장행사는 난타공연

등이 열려 음식문화특화거리 찾은 시민과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6일에는 요리전문가 강례오 세프 외 6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화지중앙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음식특화거리 품평회를 개최했다.

청년, 다문화 가정, 시장상인이 직접 개발한 스테이크, 스시, 양꼬치 등 20여 종의 세계 각국의 대표 음식을 만날 수 있으며, 현장 오디

션 '나는 스타다' 등 다양한 문화 공연도 열려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어린시절 변변한 가게 하나 없는 시골에서 자란 우리에게 전통시장은 삶의 애환이 가득한 곳이다.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그 힘과 역량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논산의 매력을 품은 전통시장만의 색깔을 입힌 야시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근 3년간 5개 전통시장에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속적인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전통시장 시설개선과 현대화에 노력해왔으며, 지난 10월 '2017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참가해 대통령상 기관표장을 수상한바 있다.

한산모시산업특구 '우수' 지역특구 수상

서천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포상금 3500만원 수상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21일 청주 그랜드 플라자에서 열린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교류회에서 한산모시산업특구가 우수 지역특구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함께 포상금 3500만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제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완화 등 일반적인 규제적용에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에 도입하여 올해 총 13개 우수특구를 선정했다.

노박래 군수는 "한산모시산업특구 선정을 계기로 모시섬유 분야의 다양한 현대화사업 발굴과 활성화

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제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완화 등 일반적인 규제적용에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에 도입하여 올해 총 13개 우수특구를 선정했다.

노박래 군수는 "한산모시산업특구 선정을 계기로 모시섬유 분야의 다양한 현대화사업 발굴과 활성화



정책추진을 통해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천=김태선기자

CIS 무역사절단 파견으로 '큰 성과'

천안시, 현지 수출상담회에서 2000만달러 규모 MOU체결

천안시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해 수출 계약 가능성을 높이는 등 수출 확대를 도모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CIS(독립국가연합)지역 벨라루스 민스크와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우수중소기업 7개업체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며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무역사절단은 바이어 상담 74건, 계약 체결 2,000만달러(220억원), 계약 추진 1,453만달러(160억원), 수출상담 4,700만달러(516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무역사절단 파견은 중소기업의 제품 시장성 평가와 유망바이어 사전 발굴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으로 하고 현지에서 MOU를 체결

여의 외국시장 진출기회를 암시하고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무역사절단으로 참여한 기업은 주밸금속공업의 손톱깎이 제품을 비롯해 주온진바이오의 사료첨가제, 주세라테크의 주열기 등 의료용품 기기제조, 주그린풀리머의 복합 PP 등 플라스틱 원재료, 주케이티엠의 자동양발편작기, 주지니스의 일칼라이온수 생성기, 주삼성보일러의 가정용 전기/가스 보일러 제품 등을 생산하는 지역의 7개 우

량 중소기업이다.

그 중 주세라테크는 주열기, 굿비디벨트, 풋워머 등을 생산하는 의료용품 기기제조, 주그린풀리머의 복합 PP 등 플라스틱 원재료, 주케이티엠의 자동양발편작기, 주지니스의 일칼라이온수 생성기, 주삼성보일러의 가정용 전기/가스 보일러 제품 등을 생산하는 지역의 7개 우

량 중소기업이다.

앞으로 시는 중소기업을 위한 상시 비즈니스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사절단 파견과 더불어 외국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행사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외국진출에 효율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천안의 미래 산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제28차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이사회 열려

2018년 장학생 선발 · 해외연수 지원사업 등 논의



원씩 2억436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매년 저소득층과 학업성적 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였으나 올해는 예제능에

제작되는 바이어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육

성을 추진했다.

내년 2018년에는 고등학생 26명, 대학생 40명, 재능학생 6명(고등학생 3명, 대학생 3명) 등 총 72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8년 장학기금 100억 달러로 장학 회의 사업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장학생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역인재육성 방안 모색에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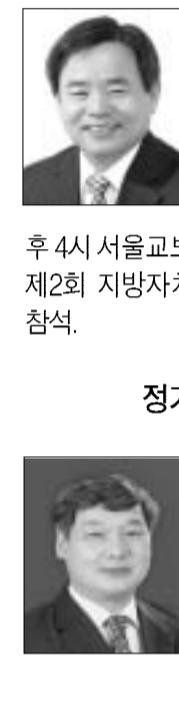
착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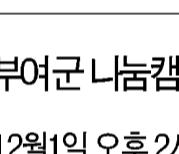
구본영 천안시장= 24일(금) 오전 10시 30분 시청 소회 의실에서 열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 MOU 협약식에 참석하고, 오전 11시 구룡동 용평사거리 일원에서 개최되는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진입 도로 및 남부대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착공식에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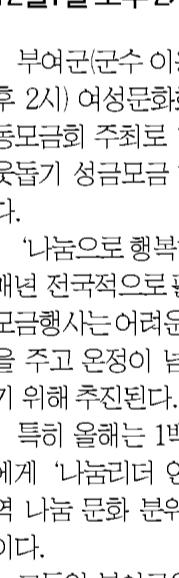
최홍묵 계룡시장= 24일 오후 5시 계룡대 야구장에서 열리는 계룡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개회식



노박래 서천군수= 24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열리는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직원 친절교육에 참석하고 오전 4시 서울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리는 제2회 지방자치 정책대상 시상식에 참석.



이우용 부여군수= 24일 오후 2시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일반음식점 정기위생교육에 참석.



부여군 나눔캠페인 현장 모금 행사= 12월 1일 오후 2시 여성문화회관에서 열려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오는 12월 1일(오후 2시) 여성문화회관에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로 '희망 2018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모금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매년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희망나눔캠페인 모금행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고 운동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1백만원 이상 개인기부자들에게 '나눔리더 인증패 전달식'을 가졌다 지역 문화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부여군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진행한 희망 2017 나눔캠페인에서는 총 3억 9400만 원을 모금해 2016년 보다 1억 4600만 원을 더 모은 바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금된 공동모금회 성금액은 부여군 관내 소외계층 이웃에게 지원되는데 주로 긴급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동절기 난방비, 명절지원비, 주택화재시 재난해비 등 공공복지 서비스를 보완하는 자금으로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모금회의 부여군 배분액은 모금액 대비 200% 이상으로, 모금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부여군에 배분되며 많은 분들이 참여할수록 우리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더 많은 혜택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MBC 220-2348-9▶TJB 281-1101▶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6: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7:00 MBC 뉴스투데이	6:00 모닝와이드	6:00 충청남도 영성소식	6:10 명의
7:50 인간극장	7:00 아침이 좋다	7:20 놀랄 법한 이야기	6:1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6:30 김경란 교수의 부모교육	7:00 두더다콩
8:25 아침마당	8:00 다큐멘터리 3일	7:50 역류	7:20 김여진	6:30 모피와 구구들	7:30 시청자뉴스
9:30 KBS 뉴스		8:40 생방송 오늘 아침	7:30 시청자뉴스	7:40 이 앵스페인스팅글	7:40 아침 스페인스팅글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00 TV소설 꽃피어 달순아	8:00 뉴스와이드	8:00 두더다콩	8:30 봄나무
11:00 국제상 수상작 시리즈 바다의 제국	10:50 인근장 스페셜	9:40 여유만만	9:10 좋은 아침	9:00 열전동네방네	9:30 힐링 광복2
11:55 UHD 한식		9:45 기분 좋은 날	10:10 SBS 뉴스	10:00 행복비니리	9:40 태오의 생생국장
12:00 KBS 뉴스12	12:00 인근장 스페셜	10:25 SBS 생활경제	11:00 종이아 학교가자	11:00 국회 24시	9:40 다문화 교부 열전 스페셜
12:30 영상앨범 산		12:30 특선다큐 위대한 영화의 단행장	11:30 고향이 보인다	12:00 국회의원	10:30 최고의 오리비결
1:00 팔도방상 스페셜	1:50 생생정보 스페셜	12:55 MBC스포츠 칭사 56주년 특집 INC 생명챔피언 스트로피	12:00 SBS 뉴스	12:00 EBS 정오 뉴스	11:00 하나뿐인 지구
1:20 TV 대명 시청자데스크			12:30 이판사판	12:50 시청자뉴스	11:40 한국기행
2:20 열린채널	2:55 후토스 -잃어버린 숲		2:00 뉴스브리핑	1:20 김경란 교수의 부모교육	12:00 EBS 정오 뉴스
3:00 노래가 좋아	3:20 타오르자 버스터			1:30 철학교 잘살고	12:10 문화유산 코리아
4:00 4시 뉴스집중	4:00 여유만만	4:00 임 코로 MBC 스페셜		2:00 화목관련기	12:20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
5:00 KBS 뉴스5	5:00 뮤직뱅크	5:00 MBC 이브닝 뉴스			13:40 명탐정 피트
5:10 동물의 세계		5:30 들이온 복단자			14:00 시보로 루트 브로로
6:00 6시 내고향					14:30 두더다콩
7:00 KBS 뉴스7		6:10 생방송 오늘 저녁			15:00 드래곤 길들이기
7:35 특집다큐 더 들어 숲, 행복으로 길을 내다	6:30 2TV 생생정보				15:25 경글북
8:25 미워도 사랑해	7:50 내 남자의 비밀	7:15 들이온 복단자			15:40 썬더스팀 등원원 프레쥬
9:00 KBS 뉴스9	9:40 UHD 특집다큐 2부작 화산 오름꽃	7:55 MBC 뉴스데스크	6:00 판타스틱 듀오 2	16:00 토닥토디 마음아	16:20 그림을 그려요
10:40 KBS 뉴스라인	10:00 VJ 특공대	8:30 글로벌 24	6:00 뉴스와이드	16:30 플리워링 하트	17:10 미사와 곰
11:10 콘서트 7080	11:00 발레교습소 백조클럽	8:55 연예가중계	7:00 시청자뉴스	17:20 이 앵스페인스팅글	17:40 힐링 광복2
		9:50 예능드라마 보그만	7:30 CMN 특집 연단꽃이 피었습니다	17:30 주사위 정 큐비주	18:00 톡! 보니하니 1
		10:00 백종원의 푸드트럭	8:00 국회 24시	18:05 코웃지구를 지켜라	18:20 톡! 보니하니 5
			9:00 뉴스와이드	18:45 소년시대	18:55 톡! 보니하니 4
			10:00 스포츠 클리닉	19:00 갤럭시 안전프로젝트	19:00 갤럭시 안전프로젝트
			11:00 다이어트 미	19:30 EBS 뉴스	19:30 EBS 뉴스
				20:40 다큐오늘	20:50 하나뿐인 지구
				21:30 한국기행	21:50 명의
				22:4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2:4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7:00 KBS 뉴스광장	6:25 생생정보 스페셜	6:50 MBC 뉴스투데이	6:00 모닝와이드	6:00 충청남도 영성소식	6:0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7:50 남북의 창	7:35 다큐멘터리 3일	7:10 특선다큐 위대한 영화의 단행장	7:10 다이노 코어	6:20 김경란 교수의 부모교육	6:30 통일 미리보기
8:30 시니어 토크 환경연못	8:25 슈퍼맨이 돌아왔다	8:00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스페셜	7:25 꿈의 왕국 소피 러비	6:30 열린미디어 시청자세상	7:00 유풍김 소방차 레이
9:20 KBS 뉴스			7:40 SBS 뉴스토리	7:00 해로운 말씀	7:30 뚝딱맨
9:30 걸어서 세계속으로			8:30 영재발굴단	7:30 문학의 향기	8:00 출동 슈퍼윙스
10:30 노래가 좋아			9:25 마스터 키	8:00 셀 션 뉴스	8:30 모아라 딩동댕
11:30 영상앨범 산	10:25 영화가 좋다	10:20 리디오스타 스페셜	10:25 애니메이션 린닝맨	9:00 CMB 스포츠 2017~2018 도드림 VR 리그	9:00 너너너
12:00 KBS 뉴스	11:35 개그콘서트	10:50 밤상차리는 남자	10:55 접속 무비 월드	삼성화재 vs 한국전력	9:30 허 풍선이 과학쇼
12:10 동행	12:45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12:05 돈꽃	12:00 SBS 뉴스	10:00 전례전 히어로 심국전	10:00 전례전 히어로 심국전
1:00 나눔의 행복, 기부			12:10 런닝맨	11:00 김경진의 집대성	10:30 전례전 히어로 심국전
1:15 국의 한마당			1:20 MBC스포츠 칭사 56주년 특집 INC 생명챔피언 스트로피	12:00 셀 션 뉴스	11:0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5 헬로 카봇5			1:20 MBC스포츠 칭사 56주년 특집 INC 생명챔피언 스트로피	12:30 시청자뉴스	11:50 지식채널 e
2:20 흡비답2			2:30 매드독	1:00 스포츠 클리닉	11:55 지식채널 e
2:35 팔도방상 스페셜			3:30 쇼! 음악중심	1:50 CMB 스포츠 2017~2018 도드림 VR 리그	12:00 최고의 요리비결
2:55 미워도 사랑해			4:4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3:00 미운우리 새끼	13:00 최고의 요리비결
4:05 UHD 특집다큐 2부작 화산 오름꽃	4:50 황금빛 내 인생	4:4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4:25 의문의 일승 미리보기	4:00 메디컬인 4:30 CMB 특집 연단꽃이 피었습니다	13:30 최고의 요리비결
5:00 UHD 한식			5:30 미운우리 새끼	5:00 해우공주	14:00 최고의 요리비결
5:10 동물의 세계			6:10 마스터 키	6:00 셀 션 뉴스	15:10 한국기행
5:40 한국인의 법상			7:00 가고보고 얹고	6:30 시청자뉴스	16:05 한국기행
6:30 행복한 지도	6:05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	6:30 무한도전 스페셜	8:00 국회 24시	7:00 가고보고 얹고	16:30 징학퀴즈-학교에 기다
7:00 KBS 뉴스			8:45 제38회 청룡영화상 시상식 1~2부	8:00 김경진의 집대성	17:40 다문화 교부열전
7:10 디큐 풍			9:15 배틀트립	9:00 셀 션 뉴스	18:35 엄마를 찾자마 시즌 2
8:05 인사이트 아시아 차마고도	7:55 황금빛 내 인생	8: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8:45 돈꽃	10:00 국회 24시	9:30 시청자뉴스	19:2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9:00 KBS 뉴스9			10:45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10:00 국회 24시	스페셜
9:20 요리인류 종의 선물, 두부 2017			11:10 그것이 알고 싶다	11:00 CMB 스포츠 2017~2018 도드림 VR 리그	20:15 극한작업
10:15 도전! K-스타트업 2017				3:00 미운우리 새끼	21:05 이것이 아생이다
11:15 다큐멘터리 알초하이머와의 전쟁				4:00 해우공주	22:00 EBS 다큐프리미엄
				6:00 셀 션 뉴스	22:55 세계의 명화 <레인맨>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40 101세의 프리포즈	7:25 KBS 재난방 센터	6:10 통일전망대	6:00 SBS 뉴스	6:00 충청남도 영성소식	6:00 가족의 발견
7:10 사람과 사람들을 살펴	7:35 영상앨범 산	7:00 강가·인도의 영혼	6:1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6:20 김경란 교수의 부모교육	6:30 흥미종목
8:00 일요진단	7:55 밸레교습소 백조클럽	7:50 휴먼다큐 사랑이 좋다	7:20 김여진	6:30 열린미디어 시청자세상	7:00 꼬마스타 러비
9:00 생방송 일요토론			7:40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7:00 해로운 말씀	7:30 문학의 향기
10:10 청 소년드라마 안단테	9:00 1박 2일	8:50 복면가왕 스페셜	8:35 칭사특집 UHD 특집 나를 향한 블록체인	8:00 셀 션 뉴스	8:30 소피 러비
11:00 대구공감	10:30 김생민의 영수증	10:10 해피타임 명작극장	9:00 TV 동물농장	9:00 김경진의 집대성	8:40 김철우 퀴즈-학교에 기다
11:55 UHD 한식		10:40 신비한 TV 스크리너즈	10:5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9:30 CMB 특집 빛도기회다	9:00 미사와 곰
12:00 KBS 뉴스	11:40 아이돌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12:00 출발! 비디오 여행	12:00 SBS 뉴스	10:00 갤럭시 인천프로젝트	9:30 갈라 쇼방송
12:10 전 국노래자랑		12:10 고백부부	12:10 SBS 인기가요	11:00 CMB 특집 빛도기회다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20 걸어서 세계속으로	1:20 마녀의 법정	1:20 돈꽃	1:20 SBS 뉴스	12:00 셀 션 뉴스	11:30 징학퀴즈-학교에 기다
2:10 김성훈 고맙습니다 스페셜	3:30 황금빛 내 인생	3:45 셀 션 TV 연예통신	2:30 SBS 뉴스	12:30 시청자뉴스	11:30 징학퀴즈-학교에 기다
2:20 미워도 사랑해	4:50 해피선데이 스페셜 <슈퍼맨이 돌아왔다 / 1회2일>	4:50 복면가왕	3:00 미운우리 새끼	1:00 스포츠 클리닉	11:30 징학퀴즈-학교에 기다
4:15 UHD 특집다큐 2부작 화산 오름꽃			4:50 런닝맨 1부	4:00 해우공주	12:00 최고의 요리비결
5:05 UHD 한식			5		

기고



신경희
충남교육청 장학관

‘와비사비 라이프’

습니다. 줄리 포인터 애덤스의 <와비사비>가 그것입니다. ‘와비사비’란 일본어 ‘와비’와 ‘사비’가 합쳐진 말이라는군요. ‘와비(わび)’는 단순한 것, 딜 완벽한 것, 본질적인 것을 의미하고, ‘사비(さび)’는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인 오래된 것, 낡은 것을 뜻합니다.

눈이 빡빡하고 시력을 때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짬을 내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일본 미국 텐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와비사비’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와비사비는 꽃잎을 펼친 구는 작약이나 저녁시간에 울리는 성당 종소리처럼 소소하고 드러나지 않는 이름다움을 알아들이고 음미하는 습관이다. 날카롭게 날을 세우고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버리고 기꺼이 그 순간을 즐기려는 의지다.’라고 전합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삶을 잠깐 멈추고, 단순하고 느리게 간결하면서도 담백한 작은 행복의 비밀들을 만지작거릴 수 있는 고마운 시간입니다.

멈추니까 비로소, 멎없음에 깃든 아름다움까지도 설픽설픽 볼 수 있어 좋습니다.

▷ 사소한 일은 그대로 흘려가게 한다 ▷ 부족도 딜 완벽해도 그게 인생이라 믿는다 ▷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솔직해진다 ▷ 마음은 언제나 느긋하게 ▷ 산책은 필수 ▷ 물질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저자는 천절하게도 ‘와비사비 라이프’로 가는 오솔길로 안내해 줍니다.

서둘러 밥을 먹고, 후다닥 대화를 나누고,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며 문자나 이메일을 거듭 확인하는 일상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화려한 이미지들이 넘쳐나는 요즘, 나만의 속도와 색깔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도 멈추어 진짜 몇이 무엇인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게, 즐겁게, 나를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건네줍니다.

어린 시절, 팔베개를 하고 누워 구름을 올려다 본 일을 가만히 불러냅니다. 지금이라고 못 할 것도 없습니다. 팔짱끼고 뒤로 물러 앉아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도록 관망합니다. 때마침, 우리 지역에 첫눈이 왔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된 수능일이라 1시간 늦게 탄 무궁화호 기차에서 그동안 무심히 스쳐 보낸 것들에게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며 느림의 미학을 만끽했습니다.

아니 젤린스키는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서 ‘때로는 뭔가 일이 되도록 애쓰지 말고, 차라리 일이 되는대로 일어나도록 놔둬 보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산자락 외딴 집 굴뚝에서 빠져 나온 연기가 흩어지듯이, 단순하고 느리게 고요히, 무엇이 삶에서 진정 본질적인 것인가를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때 우느냐고 파도를 밀치며 그가 물었을 때, 행복을 알고도 가지지 못할 때 운다고 말하고 맙았습니다. 보일까 맙 한 작은 간이역이 행복이었거든요.’라고 답했다던 어느 노시인의 인터뷰가 생각납니다. 일부를 물어오는 구름을 업은 저물녘 화첩 속의 붉디붉은 나는, 그것은 아직 내가 살아보지 못한 비밀의 숲입니다.

사설

턱없이 부족한 지진 피해주택 복구비 현실화해야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9일째를 맞았지만 재산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 775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 피해 건수가 급증해 1만 1천건에 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현재 민간시설 피해 규모는 총 1만 2천 432건으로 이 중 주택피해가 1만 1천 9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보다 3천여 건 늘어난 것이다. 지붕이 파손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파(204건)와 반파(760건)도 1천건에 육박한다.

민간시설 응급복구율이 90%를 넘었다고는 하지만 주택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면서 이재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충격을 초르기도 전에 당장 눈앞에 닥친 파손 주택 복구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법 규정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라 전파 900만 원, 반파 450만 원, 소파 100만 원이 지급된다. 전파된 집을 새로 짓는 것은 고사하고 보수나 구조를 보강에도 모자라는 금액이다. 더구나 상가와 공장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전액 자부담으로 복구해야 한다. 경주 지진 때도 이 같은 문제가 불거져 행정당국과 피해 주민 간 갈등을 빚었지만 그동안 달라진 것은 없다.

민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도 그리 많지 않다. 지진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보

험은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재물보험의 지진특약이 있다. 그러나 농민·사업체에 특화된 상품이어서 도시 거주자의가입률은 저조하다. 실제로 국내 주택의 기구별 지진특약가입률은 3.2%로 일본의 305%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가 지진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정책보험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우선 주택 파손이재민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천만 원까지 웅자를 해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파된 전용면적 32㎡ 주택의 개축에 억대 비용이 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히 한다. 더구나 현행 복구비 지원 규정은 15년간 변동이 없어 물가 등 변화된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자체에 지진피해 주택 복구비 상한 기준과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맞춰 포항 복구가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이 파손된 주택의 복구지원금 상한을 현행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늘리고, 지원금액의 국비 부담률도 3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에 정치권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이율러 피해 정도에 따른 지원 기준을 세분화하고 피해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기고

ASEAN+3·EAS 정상외교 의미와 성과



김동업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3~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와 EAS 관련 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새로운 ASEAN(이하 아세안) 정책과 더불어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입장문을 제시했으며, 또한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이 이번 동남아시아 순방 시 밝힌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은 우리 정부의 아세안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책을 전명한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주변 4강(미·중·일·러) 외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제한된 외교적 지평과 외족된 외교적 역량을 재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문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은 최근 다양한 국내외 문제로 인해 발생한 외교적 공백을 일으켜 해소하고 국가 간 마찰, 특히 한·중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외교를 통

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아세안은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이했다. 냉전시대인 1967년 동남아시아의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 중심이 돼 출범한 아세안은 이후 점차적으로 회원국을 확대해 오늘날 동남아시아 10개국이 모두 포함되는 국가 연합으로 자리잡게 됐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은 열린체계를 지향하며 세계의 주요국들과의 대화 및 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를 통해 1994년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27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이 출범했다. 또한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ASEAN+3체제를 발족시켜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5년에 출범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는 ASEAN+3에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세계의 주요국들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로 발전했다. 이처럼 약소국 연합체인 아세안은 지정학적 중요성과 외교적 유연성을 통해 강대국들을 포함하는 국제협의체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과 더불어 주요국에 특사를 파견하면서 아세안도 이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문 대통령은 아세안 외교를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아세안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북한 문제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들 사이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상황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우리 정부는 동아시아라는 보다 확장된 외교의 장에서 아세안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보다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과의 협력은 단지 정치·외교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근래 북한의 핵도발에 대응하여 도입한 사드(THAAD)체계로 인한 중국과의 불화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바 있다. 이처럼 냉엄한

국제관계를 감안하면, 대외무역의 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있어서 무역관계 다변화는 우리의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시 발표한 ‘신북방정책’과 이번에 발표한 ‘신남방정책’은 미래 우리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놓았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아세안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협력 기금을 대폭 증액해 양측 간 교류규모를 2020년까지 2000억 달러로 늘릴 것을 청원하기도 했다.

한편,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아세안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도 대폭 증액해, 현재 700만 달러로 끼어있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2019년까지 2배로 증액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 3730억 원 규모인 한국의 글로벌 인프라펀드에 2022년까지 1억 달러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부산에 개장한 아세안 문화원을 통해 양측 간 활발한 문화교류를 기대하고 있으며 본인의 임기 중에 아세안 10개 회원국 모두를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외교는 최근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보호주의적 자국 중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한 동아시아 안보·경제공동체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1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광역지자체는 전무했다.

또한 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위원회 개최 횟수는 단 11회에 불과해 사실상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유통분쟁 조정위원회’는 산자부 소관 법률인 ‘유통산업법’ 제36조에 따라 각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구성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소관부처인 산자부와의 업무협조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대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점포를 출점하면서 중소업

새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엄정한 적용이 관건

청와대가 새로운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 표절 등 5대 인사 원칙에 대해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도 포함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기준을 확대한 게 골자다. 새 정부 들어 고위공직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터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서야 1기 내각이 완료된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진다.

새 인사검증 시스템은 기준보다 범위가 넓어지고 보다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 같은 새 기준 마련과 함께 정부 인사에 대한 평가와 인사 시스템을 자문할 자문회의 평가로 확장화된다. 새 정부 들어 고위공직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터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서야 1기 내각이 완료된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진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고 해서 부실 검증 논란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존 인사 5대 원칙 또한 청와대 판단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적용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관건은 꼼꼼한 검증과 엄정한 적용이다. 이전처럼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납득하기 힘든 변명이 이어진다면 새 기준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또 다시 과거와 같은 인사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화에 따른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셈이다.

특히 해당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상습성·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하겠다는 부분은 원칙에 얹어지 않고 다면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 같은 새 기준 마련과 함께 정부 인사에 대한 평가와 인사 시스템을 자문할 자문회의 평가로 확장화된다. 새 정부 들어 고위공직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터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서야 1기 내각이 완료된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진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고 해서 부실 검증 논란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존 인사 5대 원칙 또한 청와대 판단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적용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관건은 꼼꼼한 검증과 엄정한 적용이다. 이전처럼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납득하기 힘든 변명이 이어진다면 새 기준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또 다시 과거와 같은 인사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도민 안전과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는 충남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도의 우수한 균형발전 및 안전 시책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찍기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다수 사상자 대응 시스템의 경우, 지난 22일 열린 박람회 개막식에서 충남 전시관을 찾은 이낙연 총리가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을 때 신속·정확하게 환자들을 이송할 수 있는 점 등에 주목하며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도민 안전과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는 충남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도의 우수한 균형발전 및 안전 시책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한기자

충남도 안전정책 전국 무대서 호응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참가

충남도의 IoT 기술을 적용한 다수 사상자 대응 시스템(e-Triage system)을 비롯한 안전 정책이 전국 무대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지난 22일 개막해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주제로 참가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균형발전박람회는 국정과제와 연계해 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 중이다.

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다수 사상자 대응 시스템과 2050안전비전, 식품안전, 응급의료, 소방 등 안전 관련 정책 등을 소개했다.

여기에 더해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인 청년 협업농장, 생활친환경작소 등 행복공동체를 소개, 안전을 기반으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충남을 표현했다.

이와 함께 도내 각 시·군문화·관광 자원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해 충남 명소를 배경으로 한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 E-mail : d-mail@hanmail.net
▷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 유명무실... 광역지자체 전무

법적 의무규정 불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초지자체 41곳만

최근 복합쇼핑몰, 아울렛,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변종 기업형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학교 폭력 예방 선서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면 망설이지 않고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몸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